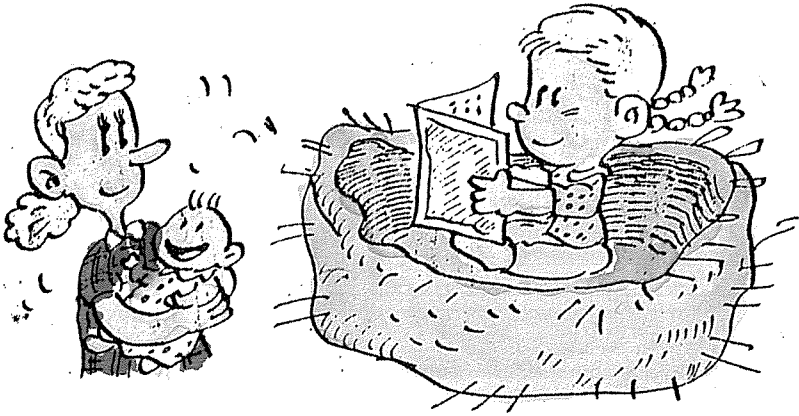


튼튼한 아기는 건강한 어머니로부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건강한 아기는 육체적 건강을 포함해서 좋은 체질, 좋은 지능, 좋은 성격을 가진 아기를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양친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요소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반드시 긴 시간을 소비하면서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기의 성격의 윤곽을 대충 짐작하는 것이다.

소질 같은 것은 절대로 나쁜 면만을 보아서 안된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천식 같은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도 결정적으로 나쁜 소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한편으로 성격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생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상 소견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100명 중 7명 정도의 아기에게서 무엇인가를 발견해낸다. 이것을 선천성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마나면 선조로부터 수없이 많은 가계를 이어오면서 여러가지 소질을 받아 내려왔다. 따라서 “나에게는 이상을 일으킬 위험인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유전자병(遺傳子病)이라는 것은...

선천성 이상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선 유전자병과 배우자병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병은, 수정 이전의 성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결혼으로 서로 합쳐져서 발현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50종 이

상의 대사 이상이 발견된다.

대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효소가 결핍되는 이상한 소질을 선조로부터 전수받은 사람이 있다.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물질이 몸에 축적될 경우 불행한 사태가 유발되기도 하고 귀중한 뇌 세포에 나쁜 장해를 일으켜 지능이 떨어지는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선천성 대사 이상(페닐케톤노증)이다.

이런 종류의 인자는, 보통은 체내에 잠복해 있는 열성 유전이다. 외견 상으로는 건강해 보이며, 특히 혈족 결혼 같은 것에 의해 표면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배우자병(配偶子病)이라는 것은...

배우자병은, 훌륭한 생명에너지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단계에서 나타나 는 이상이다. 신비스러운 수정 메카니즘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수정이 순조롭게 되어도 난세포(卵細胞)의 분할이 있고 난 후 3주까지의 배자기(胚子期)에 이르러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이다.

상염색체 이상(다운증후군이나 고양이 눈물병)과 성염색체 이상(다나라든가 켈터 증후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같은 선천성 이상은 임신 중일 때라도 양수 검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의학이 진보되어 있다. 선천성 대사 이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확실하게,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 무엇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위와 같은 선천성 이상보다는 다음에 서술하는 것과 같은 태아병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최근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선천성 이상 발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불행한 아기의 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㉞

